

# 한전공대 유치·에너지 신산업 기틀 마련

## 결산 2019

### 전남도

2019년은 전남에 있어 어느 해보다 뜻 깊은 해였다.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초대형 사업들이 결정되거나 추진된 한 해였다. '내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를 향한 값진 성과를 일궈냈다. 평가다.

우선, 한전공대 최종 입지가 나주로 확정된 데 이어 전남을 '에너지 신산업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도 현실화되는 등 구체적 성과를 거둔 점이 꼽힌다. 한전공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 중심 대학을 목표로 입지를 확정하고 2022년 개교를 위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학교법인 한전공대' 설립인가 신청을 낸 상태다.

또 한전공대가 들어설 나주 에너지밸리 일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산업부)로 지정됐고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중기부)로도 확정됐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밸리를 활용, 에너지 신산업 시대를 주도할 '글로벌 에너지수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공을 들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지역의 대규모 에너지 발전시설과 에너지 관련 기업·기관·연구소 등을 하나로 묶어 협력을 촉진하고 정부가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

'블루 이코노미' 시대 열고 e-모빌리티·에너지 특구 지정 성과  
청렴도 향상·7조원 예산 시대...흑산공항·군공항 이전 과제로

국 최조다. 규제자유특구도 영광·목포·신안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까지 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갖춘 지역은 전국에서 전남이 유일하다. 전남의 풍부한 블루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과 국가발전을 이끌어가길 핵심 성장 축으로 도약하겠다는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블루에너지, 블루투어, 블루바이오, 블루트랜스포트, 블루농·수산, 블루시티 등 6개 프로젝트별 실천 계획을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성과를 낸 점도 주목할만하다.

블루에너지가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광 일대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특화된 e-모빌리티 산업과 고층을 중심으로 인프라가 집적한 드론산업의 강점을 살려 전남을 첨단 운송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블루 트랜스포트 플랜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핵심으로 하는 블루투어 프로젝트도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개발하도록 투자자와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가하면, 경도 연륙교 조성을 위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하는 성과로 탄력이

붙고 있다. 친환경 농업과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농업환경 변화를 위해 추진중인 '블루 농수산' 정책은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350억)구축을 위한 내년 예산(13억원)을 새로 확보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유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입 농산물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성과로 이어졌다.

하위권을 맴돌던 청렴도가 상위권으로도 약한 점도 의미있는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남도는 2등급을 받아 지난해(4등급)에 견줘 2단계나 뛰었다. 광역자치단체 중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곳이 없고 2등급 이상 오른 광역자치단체도 전남·전북·충남(이상 2등급) 등 3곳에 불과하다는 점, 전남도의 경우 2015년 16위, 2016년 최하위인 17위, 2017년 13위를 기록했고 등급만 발표했던 지난해에도 4등급을 받는 등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만한 성과다.

사상 처음으로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7조1896억원을 확보한 점은 부진한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투자를 늘릴 수 있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인정받을만하다.

호남 차별의 상징으로 여겨져 정도로 지지부진했던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도 영·호남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했다는 평가다.

올 한해 일궈낸 화려한 성과들은 전남의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가 6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다면, 김영록 전남지사가 줄곧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하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물론, 아쉬움도 남고 챙겨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당장, 5년째 헛바퀴만 돌고 있는 흑산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칫 정부의 국책사업이 '백지화' 되는 최악의 사태를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정책의 신뢰 담보, 지역 발전 등을 위한 정부부처 간 합의와 결단이 시급하다.

사도 상생 과제의 뜨거운 감자로 꼽히고 있는 광주군 공항 이전 문제도 김 지사가 양측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로 꼽힌다.

현안 리스트 최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는 최첨단 국가 대형 랜드마크 연구시설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사업도 정부를 상대로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에다 취약한 문화 환경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젊은층의 인구 유출은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인구 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 주는 점도 김 지사가 고민해야 할 과제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크리스마스마켓 인 광주' 24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구름다리에서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한 '가시잡시다, 크리스마스마켓 인 광주' 행사장을 찾은 지역민들이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서진건설, 어등산 사업 의지 있었나

### 협상 마지막날 담보금 48억 몰수 피하려 지급정지 신청

#### 광주시 선정 취소 공문 발송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협약(본계약) 체결 시한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아 협상 결렬을 자초한 (주)서진건설이 사업 이행 담보금 성격의 유가증권 몰수를 피하려고 금융권에 지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어등산 사업' 우선협상자인 서진건설 측에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 사실을 공문으로 통지 후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에 금융권 방문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도시공사 측은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마지막날인 20일까지 서진건설 측이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자 협상 결렬을 광주시에게 보고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23일 서진건설과 도시공사 측에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과 사업 이행 담보 보증금(액면가 48억원 당좌수표) 몰수 방침 사실을 각각 통지했다. 광주시의 결정에 따라 광주도시공사

관계자가 이날 광주은행을 찾아 지급신청을 했지만, 은행 측은 "지난 20일 서진건설 측이 해당 당좌수표는 '사고 수표'라며 지급 정지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서진건설 측은 은행 측에 지급 정지 사유로는 '계약 불이행'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공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담보 보증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서진건설 측은 발행 당좌수표 지급 불능에 따른 제재(부도 처리)를 피하려고 액면가에 해당하는 48억원을 은행 측에 예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액면가 48억원짜리 당좌수표는 서진건설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 광주시가 자본 조달 능력 등 사업 수행 능력에 의문을 표시하지 서진건설 측이 '사업 협약 체결 전까지 사실 협상에 응하고, 사업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변호사 법률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의원발의 조례 116% 늘어 활발한 의정... '밥그릇 챙기기' 예산안 심사 비난

### 전남도의회

#### 주민설명회·공청회 137회

#### 건의·결의안 70건 '도민 대변'

#### 일당독주 폐해 해결 과제로

'용두사미(龍頭蛇尾)' 전남도의회를 바라보는 지역 정치권의 평가다.

올해 "지역민들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 의회를 구현하겠다"며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음에도 올해 말 불거진 의원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비판에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데 따라 지방의회 개혁과 혁신에는 눈을 감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전남도의회는 올 한 해 9차례, 127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전남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40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10대 의회(2015년) 때 같은 기간, 287건의 안건을 처리한 것에 견줘 113건(39.4%)이나 많았고 의원 발의 조례는 무려 162건을 처리, 10대 의회(75건)보다 116%(87건)나 증가했다.

조례안도 전국최초 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를 비롯, ▲중소기업 생산제품 수출 촉진 지원조례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조례 등 도민 안전·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연구단체 등에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만 137회를 개최했다.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까지 인터넷 생방

송으로 공개하는 등 도민 알권리와 투명 의정활동 구현에 공을 들였다. 또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지역 농어민들의 심각한 박탈감을 감안, 농·어업분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포함해 5·18평화 발원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등 70건의 건의·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도 충실했다.

도의회는 올해 열린 전남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14건, 주의 5건, 개선 143건, 권고 276건, 건의 32건 등 총 470건을,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4건, 개선 23건, 권고 79건, 건의 6건 등 112건을 지적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이같은 긍정적 평가에도, 도의원들에 대한 자질 부족,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한 비판은 올해도 피해가지 못했다.

배우자가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만든 조례조차 어기고 거리낌없이 이해관계에 있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했다가 비판에 직면했다. 더 나아가 민간 어린이집 예산을 대폭 늘리려고 시도하는가 하면,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민간어린이집 지원비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등 '함량 미달' 심사를 펼치는 행태도 일삼았다.

민중당 중심 일방통행식으로 운영되면서 대안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는지 감시와 견제는 커녕,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데 따른 문제점은 내년 도의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 우수 농산물 中 온라인시장 첫 진출

### 5000만원 상당 완도김 선적

전남도는 24일 전남산 조미김을 중국 온라인시장 진출을 위해 첫 수출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남도와 중국 한두이서가 '전남 우수 농수축산물의 중국 온라인 판매망 구축 및 판매확대' 업무협약을 한 이후 110일 만이다.

첫 선적으로 소비자 가격 5000만원 상당의 컨테이너(40ft) 한 개 분량의 전남도 명품 완도김을 실었다.

이번 수출을 계기로 한두이서의 중국 전용 온라인플랫폼 티몰, 타오바오 등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중국인이 선호하는 전남 농수축산물을 계속 발굴해 중국 온라인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내년 1월에는 중국 인터넷 스타인 '왕홍' 등을 초청해 홍보 동영상 제작 및 후속상품 발굴을 위한 품평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은수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수출로 중국 온라인시장에서 전남 농식품이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했다"며 "신유통망 채널 개척으로 지속적으로 우수 농축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32년 집진기, 슬러지크리너 전문 제조업체'

www.yhbeco.co.kr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절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원가절감

가공품질향상

직업병예방

# 산업·공작기계 연/절삭유 탱크 청소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

\* 머시닝센터, CNC선반, 기어가공기, 연삭기 등 수용성 비수용성 절삭유 모두 가능 \*

- ✚ 절삭유 교체 X
- ✚ 미세 칩 제거
- ✚ 연/절삭유 부패방지
- ✚ 슬러지 약취 제거

## 제조판매 / 장비렌탈 / 청소대행서비스

광주공장영업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청동)

▶ TEL : (062) 953 - 2995  
▶ H·P: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 12차 501호

▶ TEL : (02) 2029 - 6400 ~ 3